

YONHAP | 연합르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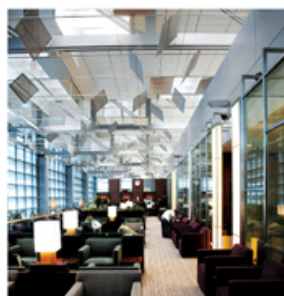


비행기에 오르기 전, 2시간 안팎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코노미클래스에 타는 여행자라면 거개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허기진 배를 채운 뒤 탑승구 부근의 승객 대기 좌석에서 안내 방송을 듣기 마련이다. 하지만 라운지 이용권이 주어진다던 사정은 달라진다. 아늑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무료로 나오는 음식으로 요기를 하고 신문과 잡지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 승객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 대해 알아본다.

1년에 5-6차례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 윤경민(30) 씨는 '알뜰한' 여행자이다. 돈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마일리지도 많이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신청하거나, 관광청이나 여행사의 이벤트에 응모해 좋은 호텔의 숙박권을 얻는 식으로 여행 준비를 최대한 줄인다. 윤 씨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라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프라이머티 패스(Priority Pass)'이다. 프라이머티 패스는 전 세계 약 275개 도시의 500여 공항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는 '우대권'이다. 프라이머티 패스를 소지하면 이코노미클래스 탑승객도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클래스 승객에게만 제공되는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한 어떤 항공사를 선택했든, 이곳에 등록된 라운지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이 패스를 통해, 특히 경유지에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만족했다. 프라이머티 패스(www.prioritypass.com)는 '더 많은 라운지, 더 적은 스트레스(More Lounges, Less Stress)'를 선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공항의 라운지를 프라이머티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푸둥 등 17곳, 일본에서는 도쿄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등 4곳의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다. 라운지는 공항 터미널보다 안락한 의자, 간단한 음식과 음료 등이 제공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이 보장돼 한 걸 여유로운 여행을 가능케 한다.

128 FEBRUARY 2009 REPÈRE



프라이머티 패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프라이머티 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원은 스탠더드(Standard), 스탠더드 플러스(Standard Plus), 프레스티지(Prestige) 등 연회비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스탠더드 회원은 연회비가 99달러로 가장 싼 대신, 라운지를 이용할 때마다 27달러를 지불

라운지 혜택이 숨어 있는 신용카드
프라이머티 패스만큼의 기능은 없지만, 국내 공항에서 라운지 출입이 가능한 신용카드들도 있다. 씨티카드의 플러티늄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와 인천공항의 아시아나 라운지, 우리카드의 인피니트 스키아페이스 카드와 시그니처 스키아페이스 카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의 KAL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카드의 레드Red 카드 가입자는 인천공항의 마티나 라운지와 에어캐페를 연 2회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신용카드의 라운지 이용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라운지를 위해 굳이 비싼 연회비를 내며 플러티늄 카드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외 출장이 잦고 공항에서도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프라이머티 패스를 갖고 있는 것이 시간과 금전 면에서 효율적



시애틀/기보르비르드 카드

해야 한다. 반면 연회비가 249달러인 스탠더드 플러스 회원은 10회까지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스탠더드 회원처럼 매년 27달러를 내야 한다. 연회비가 가장 비싼 프레스티지 회원은 1년에 399달러를 결제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세 회원 모두 동반자는 27달러의 추가 경비가 든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의 가격이 이코노미클래스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프라이어리티 패스의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다.

윤경민 씨처럼 신용카드 가입과 함께 프라이어리티 패스 회원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가 '우리카드 스카이패스(Skypass) S-CL'이다. 연회비 5만 원을 내면 프라이어리티 패스의 프레스티지 회원이 돼 별도의 비용 없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씨티카드의 플래티넘 스카이패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가입자도 프라이어리티 패스 회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비자카드가 3만 원, 마스터카드가 4만 원이다. 이외에도 여러 카드 회사의 플래티넘 카드에는 프라이어리티 패스 회원 가입의 혜택이 포함돼 있다. 다만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이용하려면 라운지에 입장할 때 반드시 카드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라이어리티 패스의 추천 라운지

프라이어리티 패스에서는 해마다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라운지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발표된 2008 올해의 라운지 결과에 따르면 미국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의 콘티넨탈 프레지던츠 클럽(Continental Presidents Club)이 1위로 꼽혔다. 콘티넨탈 프레지던츠 클럽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위에 올랐다. 2007년에는 미국 뉴욕의 뉴왁 공항 내 콘티넨탈 프레지던츠 클럽이 최우수 라운지에 등극한 바 있다.

2008 올해의 라운지

부문	지역	공항	라운지
세계	미국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 터미널E	콘티넨탈 프레지던츠 클럽
유럽	스위스 바젤	유로공항 터미널	스위스 라운지
중동 & 아프리카	바레인	바레인 국제공항	딜문 라운지
아시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터미널1	스카이뷰 라운지
라틴 아메리카	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SUNAQ VP 라운지

기-1.

물론 프라이어리티 패스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신청 후 발급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처음에는 연회비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도 되므로 여러 모로 유용하다.

프라이어리티 패스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구분	위치	이용 가능한 라운지
인천공항	메인 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H.B 라운지, 아시아나 라운지
	합승 터미널	아시아나 라운지, KAL 라운지
김포공항	국/국/국제선	아시아나 라운지, KAL 라운지
김해공항	국/국/국제선	아시아나 라운지, KAL 라운지
제주, 대구, 광주 국제공항		아시아나 라운지



시애틀/기보르비르드 클럽

추천 라운지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에드워드 맥나마라 터미널, 노스웨스트 월드 클럽
 미국 올랜도 공항, 터미널B, 델타 크라운 롱 클럽
 미국 뉴욕 공항, 터미널C, 콘티넨탈 프레지던츠 클럽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터미널4, 홀리데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터미널4, 라 레볼토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1, DCA 비즈니스클래스 라운지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터미널F, 루이스 태번 OP 피스트클래스 라운지
 멕시코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 멕시코 샬롬 이재뷰티보